

“첫 마음 그대로... 전진”

김관영 도지사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마음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연말 탄핵정국에 이어진 제주 항공 여객기 사고로 국민이 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희생자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의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일상은 이어집니다. 변함없이 새벽시장이 문을 열고, 공장은 힘차게 가동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전북을 만들고, 전북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난관과 절망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노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며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지역 경제에 희망을 심었고, 올해도 이 희망의 불씨를 더욱 키우겠습니다.

민생은 도정의 존재 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기회발전특구, 새만금 고



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등 다양한 특례를 적극 추진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테스트베드’를 실현하기 위해 전북형 스마트공장,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핵심 산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려 경제에 온기가 돌도록 비상한 노력을 해 나

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도전이아말로 전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문화도시 전북의 자부심과 초지일관의 자세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꿈을,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2025년 새해,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로운 희망전북 전인할 것”

문승우 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도민 여러분의 삶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매우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더 새롭고 더 특별한 희망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특별법에 담긴 다양한 특례를 통해 소외와 낙후의 이미지를 떨치고 도약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과거 새만금쟁버리 파행의 오명을 씻어내고 전북의 위상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더 큰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북특별법 특례들이 전북 곳곳에서 잘 시행되고 뿌리 내리도록 자체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속도감 있는 전북발전을 위해 새로운 특례 발굴에도 의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고유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3고(高)의 늪에 빠져 경제는 날로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경제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북 뭍을 찾고 지키기 위해 각종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들의 그늘진 얼굴에 환한 웃음을 되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사회는 복잡해지고 행정은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책 역량을 쌓고 전문성을 높여 다양한 민의가 도정이나 교육행정에 제대로 반영될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의회에 부여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도민의 신뢰를 토대로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견인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희망전북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군산 만들어가자”

강임준 군산시장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로 변화를 이끄는 푸른 뱀의 해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혁의 거친 물살에 맞서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뼘 한뼘 이룬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5년도에는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로



격변의 한해가 예고되고 있지만, 전례없는 도전과 기회도 있다는 마인드로 새로운 희망의 싹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 한해 꼭 이루어내야 할 핵심 시정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더 큰 군산, 더 위대한 군산을 구축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특례와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적극 활용하여 키움오피스 가족행복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글로벌 신산업 및 K문화관광 거점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확보한 1조 2천억원의 국가 예산을 발판으로 지역경제를 더욱 견고히 다지고 민생을 튼튼히 되살리는데 온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과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해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군산의 미래를 위한 밝은 가능성을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강한 결속을 바탕으로, 모든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갈 것이라 믿으며,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차고 밝은 ‘우리들의 군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대한 도시, GREAT 익산 위해 땀 것”

정현울 익산시장

먼저, 지난 연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과 그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뱀의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 익산시와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요와 다복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익산시는 54년 만의 시청사 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최초의 민간특례사업 추진,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의 선정 등으로 오랜 시간 염원해 오던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새로운 2025년에도 ‘위대한 도시, GREAT 익산’을 위해 도심 속 자연을

품은 녹색 정원을 만들고,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한(韓)문화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공평하게 누리는 도시를 이루고, 신산업 및 전북권 광역경제권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육, 전북 발전 토대 되도록”

서거석 교육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푸른 뱀의 해를 맞아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전북교육은 ‘학력 신장’을 목표로 힘차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습 수준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2025년 또한 ‘학력 신장’과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AI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IB프로그램, 국

제교류수업 등으로 공교육을 다양화·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교사들의 자발적인 수업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문화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도 차별 없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

습니다. 이는 공교육의 책임이며, 전북교육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학생 지도와 수업에 열정과 성의를 담을 수 있도록 교권을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학교가 신뢰와 존중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북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한 해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이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전북 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주의 기적 만들 것”

우범기 전주시장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2025년 희망찬 을사년(乙巳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을 가르고 떠오르는 붉은 태양처럼, 새로운 희망과 꿈이 샘솟는 새날의 시작입니다.

아직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지만,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워내는 인동초처럼 대한민국은 반드시 새 희망의 싹을 틔워낼 것입니다.

지난해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지방시대의 주역으로서 전주의 큰 꿈을 이뤄내기 위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이어왔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은 전주대변역의 신포탄이 될 MICE 복합단지로 탈바꿈



등 지역경제 대전환의 틀을 튼튼히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은 어려운 길일지라도, 20년, 30년 후에는 전주 미래를 이끄는 확실한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국 혼란 및 소비침체, 재정 악화 등 민생경제는 극심한 위

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면, 전주의 기적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2025년, 민선8기 전주시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고, 전주대변역의 비전과 계획을 차근차근 실현해 가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위대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전주 경제의 확실한 도약을 이루고 당당한 전라도의 수도로 한창게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의회와 함께 희망찬 전주 만들어가자”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2025년 을사년(乙巳年)의 해가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철쭉 같은 어둠을 헤치고 떠오른 태양과 함께 희망찬 내일을 열기 위한 새로운 여정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2024년은 유난히 다사다난했습니다. 국제 경제의 혼란과 함께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비상계엄 사태는 환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혹독한 겨울에도 봄의 새순을 피워 올리는 인동초처럼 새 희망의 싹을 틔워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반드시 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큰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6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지닌 꿈, 그 꿈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며 포부이고 미래입니다.

전주시의회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의 편에 서고자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발로 뛰며, 시민의 꿈을 위해 동행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입니다.

갈등하기보다 화합해야 하고, 물러서기보다 진력해야 합니다. 서로를 믿고 배려하며 격려해 나간다면, 어떤 어려운 과제라도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2025년, 여러분과 함께 나아갈 전주 시의회를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이 꿈꾸는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이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읍의 지속 가능 발전·시민 행복 실현에 최선”

이학수 정읍시장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희망찬 을사년(乙巳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정읍천 야간경관 조성,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정읍트레이닝센터 개소 등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2025년은 민선 8기의 중반이자, 새로운 도약의 원년입니다.

저는 시민과 함께 미래로 도약하는 으뜸 정읍을 목표로 정읍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기본소득과 카드수수료 지원, 정읍사랑 상품권 800억 원 발행, 공공배

달업 운영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생고을시장 현대화 사업과 정다온상권 활성화로 침체된 상권을 되살리겠습니다.

둘째, 문화·관광·교육도시로의 도약을 이루겠습니다.

정읍천 야간경관과 벽천분수 조성,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을 통해 정읍만의 독창적인 문화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청소년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읍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키워나가겠습니다.

셋째, 첨단산업 육성으로 정읍의 미

래를 열겠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신약 개발과 농축산 미생물 공유 인프라 구축, 첨단바이오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섯째, 촘촘한 복지와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5년은 도전과 도약의 해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정읍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과 함께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